

광산구 **더불어** 교과서에 실린다

(윤남동 노인복지관)

광주1호 협동조합
두부공장·팔죽가게 설립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복지소비자서 생산자로

복지공동체 새모델 제시
내년 초등4년 사회 개재



광주 광산구 윤남동 '더불어' 노인복지관 1층에 마련된 북카페에서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산구 윤남동에 있는 '더불어' 노인복지관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광주시 1호 협동조합으로 설립된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인 복지공동체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을 받으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실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21일 광산구와 '더불어' 노인복지관에 따르면, 최근 광주교육과 학원위원회는 2014년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에 이 노인복지관의 활동내용을 게재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요청했다.

이 노인복지관이 서로 돕고 사는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공동체'로서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가르침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더불어' 노인복지관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다양한 활약을 통해 새로운 노인복지 모델을 정립시키고 있다.

현재 조합원만 5000여명에 이르는 '더불어' 협동조합은 월곡동 공장에서 운영하는 두부공장과 월곡시장내 팔죽가게를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바자회와 재능기부 등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복지관 건물 1층에 '북카페'를 만들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올해 대보름 행사를 복지관 노인들이 주체가 돼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키는 등 '복지 소비자'로만 인식되던 노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복지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민행태 광산구청장은 "노인들이 협동과 존중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한 모범 사례"라며 "더불어' 어른들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미석 지역교과서 집필위원도 "주민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조, 지역 공동체를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우리 고장을 일구는 주역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깨달았다"고 교과서 등재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연구원도 '더불어' 노인복지관 운영사례를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이 교과서는 내년 새학기부터 학생들에게 배포된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세계한상대회 '경제대회'로

29~31일, 45개국 한상기업인 3000여명 참석

수출·투자 유치 통한 비즈니스 창출 등 목표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만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제12차 세계한상(韓商)대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와 재외동포들은 이번 대회를 지역발전의 견인할 '경제대회'로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22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계 45개국 3000여명의 국내외 경제인이 참석하는 제12차 세계한상대회가 '창조경제'를 이끄는 힘, 한상 네트워크'란 주제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지역에서 최초로 열리는 대회인 만큼 광주·전남·북의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경제단체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광주시 등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리딩CEO 포럼, 영비즈니스 포럼,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멘토링 세션,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기업 전시회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젊은 기업가의 모임인 '영비즈니스 리더'들은 광주의 특색 산업인 광(光)산업, 자동차, 백색가전, 그린 에너지 등과 관련된 기업을 방문해 상호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430개 업체·기관이 참여하는 기업 전시회에는 한상특별관, 광주산업

특별관 등 맞춤형 테마관을 구성하는 한편 수출유망기업관, 특허산업관, 글로벌식품관 등 품목과 특징을 고려해 부스를 배치하고 온라인 현장 중계 시스템을 도입해 참가 중소기업 소개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도 김치 특별관, 코리아 디아스포라 사진전 등이 준비돼 있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를 '경제대회'로 정하고 ▲수출과 투자유치 등을 통한 실질적 비즈니스 창출 ▲광주의 브랜드 가치 업그레이드 ▲광주·전남·전북 등 3개 자치단체 협력력 모델 제시 등 3가지 목표 달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위해 각종 전시회와 야외 공연, 문화·예술 갈라쇼 등도 열 계획이다.

강문태 광주시장은 "철저한 대회 준비를 통해 국제도시 광주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명품대회'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주교 성성 50주년 운공회 대주교 감사미사 한국 천주교 역사상 세 번째로 주교 성성(成聖) 50주년을 맞아 운공회(88) 빅토리아 대주교의 감사 미사가 22일 광주 북구 임동성당에서 열렸다. 윤 대주교가 신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재정난' 전남지자체 콘도 리조트 251구좌

회원권 구입액 54억원... 여수 53구좌로 가장 많아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서 콘도와 리조트 등 휴양시설 259여 구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도와 목포, 여수, 고흥 등 도내 14개 시군이 현재 보유한 휴양시설은 모두 251구좌로 집계됐다. 구입액 기준으로 54억1000만에 달했다. 구좌당 평균 매입가격은 2155만원이다.

전남도가 금호리조트를 비롯 송원, 일성, 사조, 한화콘도 등 7곳에 26구좌(3억90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가장 많은 구좌를 보유한 지자체는 여수로 송원, 대명, 디오션리조트 등 4곳에 53구좌(7억8000만원), 나주시는 일성, 금호, 중흥골프스 등 3곳에 24구좌(3억8000만원)를 갖고 있다.

/오영록기자 kroh@kwangju.co.kr

또 순천이 23구좌(4억1000만원), 목포와 광양이 각 18구좌에 구입액은 4억6000만원과 2억7000만원이다. 영광은 16구좌(2억6000만원), 완도와 담양이 각 13구좌로 2억2000원과 2억원 등이다.

15개 지자체 가운데 10구좌 이상 보유한 곳은 전남도를 비롯해 11곳에 달했다.

상당수 지자체가 도내 휴양시설뿐만 아니라 지리산과 제주, 설악산, 수안보, 경주, 양양 등 외지 회원권도 보유하고 있다. 휴양시설 회원권이 없는 지자체는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영암, 무안, 진도 등 8곳이다.

올해 이들 휴양시설을 이용한 공무원은 3281명이었다.

/오영록기자 kroh@kwangju.co.kr

환경단체, MB 등 '4대강 사업' 책임자 고발

광주환경운동연합 "영산강 문화유산 파괴 총체적 불법"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4대강 사업이라 속인 채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사업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까지 자행됐다"며 "국민고발인단 3만9000여명의 이름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대운하 사업에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지출해 국가에 22조원의 손해를 끼치고 건설사 등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안겨줬다"며 "이는 특정경제

회와 관련 법률상 배임 혐의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피고발인은 이 전 대통령 외 57명으로 이명박 부처 장관, 핵심 부처인 국토부 책임자,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 등이 포함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가 흐르게 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영산강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갈차법을 위반한 총체적 불법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생태계 파괴 사업을 강행한 정 부와 이에 동조하고 묵과한 문화재청, 전남도 등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시민혈세 빼먹는 맥쿼리에 강력대응해야" 광주기독교교단협

광주시 기독교교단협의회는 2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순환도로 운영자인 맥쿼리가 광주 시민의 혈세를 약탈하던 중 광주시 부와 이에 동조하고 묵과한 문화재청, 전남도 등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과 국민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광주 시민이 직접 나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맥쿼리는 법인자본을 개인사채로 바꾼 뒤 고수익의 이자를 챙기는 고리사채업이나 다른 행위를 해 광주는 물론 서울 등 여러 지자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

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의 관리운영권을 매입하면 2028년까지 세금 5000여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광주시민들도 맥쿼리의 부당한 기업행위를 규탄하고, 시민대책기구 구성 및 시민 서명운동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사원 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장단, 친환경 나비의 고품질 합판다이너스티 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프론트(신입 및 경력) 여 0명
 - 홀서빙(신입 및 경력) 남·여 0명
 - 코스관리(신입 및 경력) 남 0명
 - 시설팀 전기안전관리자(경력) 남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골프장 유경험자 우대
- 급여**
 - 연봉제(면접 후 결정)
-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해당자)
 - * 이력서 우측상단 지원분야 및 희망연봉 기재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 총원시까지(총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처**
 - 주 소 : 전남남도 합평군 학교면 곡창1 산1-6
 - 담 당 :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합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높게 ↑

금리는 은행만큼 낮게 ↓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 | 공동본점 | 227-4474
- | 금호지점 | 383-4474
- | 풍암지점 | 653-4474

NC백화점 입점기념

2014년 부동산전망과 재테크 성공전략 무료 대 특강

부동산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책과 환경속에서 성공투자전략을 강요합니다.

강사 정영수 전남대 경영학박사 김영표 명지아카데미 대표

강의내용 2013년에 변경된 부동산정책과 이에 따른 재테크 성공전략

일시 2013.10.24 목 주간2시/저녁7시

장소 구.현대백화점 10층 강연장

특전 다와옥션 경매 이용권(30,000원) 무료증정 * 좌석 당일 혼잡케로 선착순 70명 전회차 (강의교재는 2,000원)

NC 백화점 문화센터
 (062)510-8151-2 야간접수 1899-2690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환주시민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